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엄 춘 · 장 영 애^{1)*}
인천대학교 대학원·소비자아동학과¹⁾

The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China

Jin, Yan Chun · Jang, Young Ae^{1)*}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China. The subjects were 292 children and their mothers who are caring for their 3-5 years old children in Korea and China. Data was collected using a parenting efficacy index, parenting behavior index, parenting stress index and child behavior check list.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China.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at is the gender of the child, the mother's education, the father's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China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in some sub-variables. It was also found that the gender of the child, the mother's education, the father's education, the frustration and uneasiness of the parents, the control behavior, and the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the mother's education, the family income, the affection behavior, the rejection behavior, and the control behavior,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China.

Key word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Korea and China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접수일: 2013년 1월 31일 심사일: 2013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22일

†**Corresponding Author:** Jang, Young Ae Tel: 82-32-835-8254

e-mail: chae@inche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가정은 인간의 성장, 발달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심리적 환경이며 정서적 안정과 자아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인격형성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가정 안에서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부모인데, 인간은 태어나고 자라나는 동안 부모가 제공하여 주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을 통해 성장, 발달해 나간다. 부모가 제공하여 주는 양육 환경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에 관한 관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Choe 2002).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최초의 교육자임과 동시에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는 존재이므로 부모의 양육 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Kang 2008).

많은 연구들이 부모 양육관련 변인 중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끊임 없이 탐색하고 있는데, 최근 부모 양육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양육의 인지적 요인은 양육과 관계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키고 양육에 대한 바른 평가와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부모 자신의 자아형성과 양육뿐 아니라,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Choe 2002).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되는데(Johnston & Mash 1989; Shin 1997), 양육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며, 자녀의 자원과 능력을 인정하여 문제 해결 상황에서 일관되고 융통성 있게 적절한 도움을 준다고 한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다(Lee 2009).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고 보고되었다(Coleman & Karraker 1998).

한편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인 부모의 영향은 자녀를 대하는 양육행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Lee 1983).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각 형태별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 아니라 정서 및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Symonds (1949)는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양육행동을 분류하였고, Schaefer(1959)는 애정-거부, 자율-통제의 축으로 양육행동을 분류했다. 아동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언어, 가치관, 지식, 능력 등을 습득한다. 왜냐하면 아동은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어른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이다(Yun 2003).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지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규범을 학습하고 자기표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학자들의 이론과 관련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성장기에 있는 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부모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발달 등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Song 2004).

또한 현대사회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수준도 높아져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Park 199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성격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유아의 성장,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Ko 1995).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가족체계가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한 스트레스이다(Ko 1994). Abidin(1990)은 부모가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자녀 양육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있다. 어머니의 일상생활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많으면 어머니 자신이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증가되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Jung(2002)의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이로 인해 유아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Park(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다시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유아의 행동은 결코 그들의 상황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이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모들 또한 과거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해가 많아졌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가족 상황에서는 양육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핵가족 형태에서는 점점 더 가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 부담 및 이에 따른 책임감이 증가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Bae 2009).

유아는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게 되고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Her & Lee 2010).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이 항상 긍정적인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형태로도 나타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행동이 되기도 한다(Jung 2011). 아동의 문제행동이란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동이 정상적인 아동들의 행동과는 달리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요인들로 인해 유발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이며 습관상의 이상이 있는 행동양식을 의미한다(An 2010). 정상적인 지적 능력이 있어도 주어진 환경에 적절히 적응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거나, 유아의 태도 및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유아 자신의 건전한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제행동은 어떤 태도 행동이 주어진 상황에 적절치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행동으로 일반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일으키는 행동이나, 사회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으로 표현된다. Jang & Cho(2000)와 Kang(2003)은 적대 공격적인 행동, 걱정 불안 행동, 과잉 산만행동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 했으며, Achenbach(1991)는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행동을 분류했다. 외현화 문제행동은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격성, 과잉행동 등이 포함되며, 내재화 문제행동은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이 포함된다.

유아기는 발달 시기적 특성상 역기능적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시기로,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 유아의 10~20%정도가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일시적인 사회적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약 7~13%의 유아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여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Hwang et al. 2002; Lee et al.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비해 다소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보다 다양한 문제행동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와 아동기에 비해 현저하거나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간과해

버리기 쉽다. 그러나 유아기는 무엇보다도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아기의 문제 행동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이르러 또 다른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장애로 진전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다른 어떤 발달 단계의 문제행동보다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Song 2003).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에는 가정에 관련되는 환경변인, 특히 부모와 관계되는 다양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중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Lee(1994)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인 변인이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Youn(2006)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적극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즉,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이는 또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Choe(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는 불안, 분노, 공격성 등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on(2004)은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에 따른 부모 양육행동의 차이에 대해 연구한 결과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은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7)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낮은 자율성을 부여하며 통제적 행동을 취할 때 자녀

가 불안, 산만함을 비롯한 문제행동을 높게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Jeong & Oh(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유아에게 부모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게 되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더욱 더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Park(2010)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수록 문제행동이 낮았으며 통제적으로 대할수록 문제행동이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Bae(2008)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인 행동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은 애정적인 행동을 적게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 (201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거부적 행동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애정적, 자율적 행동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이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Park(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냈고, 이는 다시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의 빈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Lee & Park(200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Yun(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유아가 불안, 공격, 산만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각각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 중 어느 변인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더 밀접하게 관련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필요한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의 문제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아는 외향적 문제행동(과잉, 미숙, 공격성 등)의 빈도가 높은 반면 여아는 내향적, 정서적(불안, 우울, 정신 신체 증상 등)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Shin 1997). Hong & Hong(1986)의 연구에 따르면 남아가 주로 과잉, 미숙, 공격성 등 외향적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은 반면, 여아는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정신 신체 증상 등 주로 내향적, 정서적 문제의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또 Jang & Cho(2000), Yun(2006)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과 불안, 과행동성 산만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는 취학 전 집단이 미성숙행동에 있어서 초등학생 집단보다 미성숙과 같은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un 2003).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고(Lee & Kim 2008),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는 낮은 문제행동을 보였다(Min 2010). 아버지의 학력에 있어서는 Bae(2009)의 연구에서는 대학 이상을 졸업한 아버지보다 전문대 졸업을 한 아버지를 가진 유아와 고졸이하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의 유아에게 더 많은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가정 월소득에 따라서는 월소득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났다(Kim 1995).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유아의 성별, 연령,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월소득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한편 자녀가 각 사회에 알맞은 성인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것을 사회화로 정의할 때, 사회화의 목적과 방법은 사회마다 다르다. 즉,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어떤 성격이 바람직한가,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가 중요한가 하는 질문의 답은 문화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 아동 양육에서 문화 차이는 국가의 역사, 관습, 이념,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Zhang 2009).

한국과 중국은 이웃나라이며 오래 전부터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해 왔다.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양육에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전통적 한국과 중국 사회에서 가계의 계승은 전통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였다. 전통사회의 가족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제일의 임무로 여겼으며, 가계를 계승할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서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빛낼 인물로 키워내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았다(Zhao 2007). 한국과 중국은 전통적인 가족을 강조하는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사회 체제와 사상 속에서 두 나라의 문화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정치, 경제적인 체제의 변화, 한국의 심각한 저 출산 현상과 중국의 한자녀 정책 등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자녀 가치관의 변화 등은 부모의 양육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두 나라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이 아직도 공통점이 있는지, 아니면 많은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에 관련된 변인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Ren(2002)과 Her(2003)의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가 중국 어머니보다 양육에서 거부적인 양육행동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i(2002)의 연구에서는 중국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보다 자녀에게 더 수용적이며, 과잉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국 어머니는 중국 어머니보다 더 자율을 허용하는 행동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Zhao(2007)와 Zhang(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 어머니가 중국 어머니보다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보여주고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보다 거부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문화권

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고, 특히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을 비교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양육 관련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 세 변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해보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 관련변인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두 나라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대시키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유아성별, 연령, 부모 학력, 가정 월소득)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넷째,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3~5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국 어머니 149명과 이들의 유아 149명, 중국 어머니 143명과 이들의 유아 143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연구 대상자는 인천 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4곳, 중국의 연구대상자는 중국 대련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2곳을 통해 수집된 자료 총 292부를 최종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양육효능감 척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Giban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Shin(1997)가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9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4문항)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73,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72로 나타났다.

2)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도구는 Schaefer(1959)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Lee(1983)가 번안한 것을 Song(2004)이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나누어지며, 각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육행동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신뢰도 계수는 애정적 행동이 .78, 거부적 행동이 .72, 자율적 행동이 .70, 통제적 행동이 .73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Korea		China		
	N	%	N	%	
Gender of child	Male	79	53.0	75	52.4
	Female	70	47.0	68	47.6
Age of child	3	46	30.9	48	33.6
	4	48	32.2	45	31.5
	5	55	36.9	50	35.0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31	20.8	26	18.2
	College	45	30.2	31	21.7
	University	73	49.0	86	60.1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28	18.8	24	16.8
	College	38	25.5	26	18.2
	University	83	55.7	93	65.0
Family income	2,000,000 won less (10,000 元 less)	65	43.6	29	20.3
	2,000,000~3,000,000 won less (10,000~15,000 元 less)	54	36.2	67	46.9
	3,000,000 won or more (15,000 元 or more)	30	20.1	47	32.9
	Total	149	100	143	100

3) 양육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검사 PSI(Parenting Stress Index)를 Su(1992)이 번안한 척도를, Shin(1997)이 일부 수정하여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80,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67,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77로 나타났다.

4)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Behar & Stringfield(1974)가 제작한 유아 행동에 관한 질문지(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만 3-6세 유아의 행동 및 부적응 행동을 검사하기 위해 개발된 5단계 평정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Jang & Cho(2000)와 Kang(200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공격행동, 불안행동, 산만행동의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특정 행동이 어린이집에서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가를 교사가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공격행동이 .93, 불안행동이 .78, 산만행동이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만 3~5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 각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아 문제행동척도는 유아의 담임교사 5명에게 평정하도록 하였다. 각 척도는 먼저 한국어로 제작한 다음, 중국 어머니를 조사하기 전 연구자가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의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중국 선생님을 통해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진행된 본 조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4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서 진행된 본 조사는 대련에 위치한 2곳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한국과 중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배포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설문지는 담임교사를 통해 가정에 배부하였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설문지는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국가 별로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한국에서 200부, 중국에서 170부, 총 370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질문지를 제외한 한국 149부, 중국 143부 총 292부의 질문지를 본 조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

기 위하여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문제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

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검증을 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3, Table 4와 같다.

Table 2. Differences in the parenting-efficacy, the parenting behavior,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and China

Variables		Korea M(SD)	China M(SD)	t
Parenting -efficacy	Efficacy of the parents	3.73(.51)	3.80(.52)	1.04
	Frustration and uneasiness of the parents	3.40(.91)	3.49(.86)	.87
Parenting behavior	Affection	4.05(.51)	4.15(.47)	1.68
	Rejection	2.58(.54)	2.57(.53)	-.08
	Self-regulation	3.49(.48)	3.50(.50)	.14
	Control	2.73(.56)	2.72(.56)	-.17
Parenting stress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2.16(.51)	2.10(.49)	-.98
	Stress of the difficult child	2.25(.67)	2.25(.73)	-.04
	Educational distress	2.21(.86)	2.16(.85)	-.57
	Total parenting stress	6.62(1.66)	6.50(1.71)	-.59
Problematic behavior	Aggression	1.85(.91)	1.75(.90)	-.95
	Uneasiness	2.06(.86)	1.98(.81)	-.82
	Diffuseness	2.05(.99)	1.97(.90)	-.70
	Total problematic behavior	5.96(2.38)	5.70(2.24)	-.95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 유아의 경우,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은 유아의 성별,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M=2.08)가 여아(M=1.59)보다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 졸업(M=2.21)인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M=1.66)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유아의 공격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행동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M=2.50)인 집단이 대졸 이상(M=1.85)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M=2.29)인 집단과 전문대 졸업(M=2.44)인 집단이 대졸 이상(M=1.81)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유아의 불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행동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졸업(M=2.48)인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M=1.78)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산만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총점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M=6.90)인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M=5.53)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M=6.47)인 집단과 전문대 졸업(M=7.13)인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M=5.26)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아의 경우는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남아(M=1.98)가 여아(M=1.50)보다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불안행동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M=2.50)인 집단이 전문대 졸업(M=1.91)인 집단

Table 3. Difference in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Korea

Variables		Problematic behavior											
		Aggression			Uneasiness			Diffuseness			Total		
		M	t/F	S	M	t/F	S	M	t/F	S	M	t/F	S
Gender of child	Male	2.08			2.05	-.11		2.06	.16		6.20		
	Female	1.59	3.41**		2.07			2.03			5.70		1.28
Age of child	3	1.66			2.02			2.13			5.80		
	4	2.09	2.89		2.21	1.17		2.21	1.94		6.51		1.99
	5	1.81			1.96			1.84			5.62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2.01			2.50		b	2.38			6.90		b
	College	1.91	1.01		2.09	6.82**	ab	2.03	2.37		6.03	3.77*	ab
	University	1.75			1.85		a	1.92			5.53		a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94		ab	2.29		b	2.24		ab	6.47		b
	College	2.21	5.27**	b	2.44	8.98***	b	2.48	7.74**	b	7.13	9.96***	b
	University	1.66		a	1.81		a	1.78		a	5.26		a
Family income	2,000,000 won less												
	2,000,000~3,000,000 won less	1.94			2.12			2.06			6.11		
	3,000,000won or more	1.81	.52		2.05	.39		2.10	.25		5.96	.40	
	3,000,000won or more	1.75			1.95			1.94			5.64		

*p<.05, **p<.01, ***p<.001

Table 4. Difference in preschool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 China

Variables		Problematic behavior											
		Aggression			Uneasiness			Diffuseness			Total		
		M	t/F	S	M	t/F	S	M	t/F	S	M	t/F	S
Gender of child	Male	1.98	3.28**		1.99	.10		2.06	1.30		6.03	1.85	
	Female	1.50		1.97	1.87		5.34						
Age of child	3	1.61			1.95			2.10			5.67		
	4	1.84	.90		2.00	.06		2.03	1.66		5.88	.20	
	5	1.81			1.99			1.79			5.59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2.08			2.50		b	2.33			6.92		b
	College	1.74	2.27		1.91	7.23**	a	1.84	2.65		5.48	4.92**	ab
	University	1.66			1.85		a	1.91			5.42		a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95			2.31			2.24		b	6.50		b
	College	2.05	3.03		2.05	2.90		2.23	3.43*	b	6.32	4.00*	ab
	University	1.62			1.88			1.83		a	5.33		a
Family income	10,000 元 less	1.66			1.88			1.88			5.41		
	10,000~15,000 元 less	1.69	1.02		1.96	.60		1.90	1.00		5.55	1.17	
	15,000 元 or more	1.91			2.08			2.12			6.11		

*p<.05, **p<.01

과 대학교 졸업 이상(M=1.85)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집단의 유아가 불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행동은 아버지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M=2.24)와 전문대졸(M=2.23)인 집단이 대졸이상(M=1.83)인 집단보다 산만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문제행동 총점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M=6.92)인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M=5.42)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M=6.50)인 집단의 유아가 대졸이상(M=5.33)인 집단의 유아보다 문제행동 총점이 높게 나타났다.

3.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Table 5, Table 6과 같다.

한국의 경우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30), 불안행동(r=-.17), 산만행동(r=-.18),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25)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28), 불안행동(r=.27), 산만행동(r=.22),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29)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30), 불안행동(r=-.24), 산만행동(r=-.25), 문제행동 총점(r=-.30)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26), 문제행동 총점(r=.22)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율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28), 불안행동(r=-.33), 산만행동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renting-eficacy, the parenting behavior,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Variables	Problematic behavior			
	Aggression	Uneasiness	Diffuseness	Total
Parenting Efficacy of the parents	-.30***	-.17*	-.18*	-.25**
-efficacy Frustration and uneasiness of the parents	.28**	.27**	.22**	.29***
Affection	-.30***	-.24**	-.25**	-.30**
Parenting Rejection	.26**	.12	.13	.22**
behavior Self-regulation	-.28***	-.33***	-.35***	-.35***
Control	.04	.06	.05	.05
Stress in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s	.45***	.34***	.35***	.42***
Parenting Stress of difficult child	.29***	.20*	.20*	.29***
stress Educational distress	.32***	.34**	.35***	.35***
Total parenting stress	.43***	.34***	.35***	.43***

*p<.05, **p<.01, ***p<.001

($r=-.35$),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35$)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45$), 불안행동($r=.34$), 산만행동($r=.35$),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42$)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녀의 기질과 관계된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29$), 불안행동 ($r=.20$), 산만행동($r=.20$),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29$)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r=.32$), 불안행동($r=.34$), 산만행동 ($r=.35$),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3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43$), 불안행동($r=.34$), 산만행동($r=.35$),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43$)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유아가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중국의 경우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19$)과만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32$), 산만행동($r=-.22$),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27$)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거부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19$)에서만 정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거부적 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17$), 불안행동($r=-.20$), 산만행동($r=-.24$), 그리고 문제행동 총점($r=-.24$)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애정적, 자율적 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22$), 문제행동 총점($r=.18$)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18$), 산만행동($r=.17$), 문제행동 총점($r=.19$)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renting-efficacy, the parenting behavior, the parenting stress and the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China

Variables		Problematic behavior			
		Aggression	Uneasiness	Diffuseness	Total
Parenting- efficacy	Efficacy of the parents	-.19*	-.08	-.07	-.13
	Frustration and uneasiness of the parents	.15	.14	.10	.15
Parenting behavior	Affection	-.32***	-.15	-.22**	-.27**
	Rejection	.19*	-.00	-.00	.07
	Self-regulation	-.17*	-.20*	-.24**	-.24**
Parenting stress	Control	.02	.02	-.16	-.06
	Stress in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s	.22**	.11	.13	.18*
	Stress of difficult child	.14	.15	.12	.16
	Educational distress	.18*	.13	.17*	.19*
	Total parenting stress	.21*	.16	.18*	.21*

*p<.05, **p<.01, ***p<.001

수록 유아의 공격, 산만 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r=.21$), 산만행동($r=.18$), 문제행동 총점($r=.21$)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유아의 공격, 산만 행동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양육행동,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에서는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양육행동,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더 많은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상관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4. 한국과 중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한국과 중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7, Table 8과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r 이 .70 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고 VIF계수들도 4.0 이상을 넘는 변인이 없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회귀분석 시 성별은 가변수화해서 처리하였다.

한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공격행동에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beta=.29$)와 어머니의 학력($\beta=-.29$)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학력($\beta=-.28$), 유아의 성별($\beta=-.2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공격행

Table 7. The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Korea

Variables	Aggression			Uneasiness			Diffuseness			Total			
	B	β	t	B	β	t	B	β	t	B	β	t	
Socio-demographic variables	Gender of child	-.38	-.21	-2.65*	.18	.10	1.22	.14	.07	.88	-.06	-.01	-.16
	Age of child	.08	.07	.91	-.07	-.06	-.74	-.16	-.14	-1.69	-.15	-.05	-.65
	Mother's education	.33	-.29	-2.07*	-.19	-.18	-1.20	.18	.14	1.00	.32	.11	.74
	Father's education	-.32	-.28	-2.04*	-.11	-.10	-.71	-.38	-.30	-2.14*	-.81	-.27	-1.93
	Family income	.06	.05	.61	.12	.11	1.16	.09	.07	.75	.27	.09	.98
Parenting-efficacy	Efficacy of the parents	.13	.07	.66	.20	.12	1.04	.43	.22	2.01	.76	.16	1.48
	Frustration and uneasiness of parents	.08	.08	.84	.19	.20	2.01*	.17	.15	1.60	.43	.17	1.74
Parenting behaviors	Affection	-.14	-.08	-.79	-.07	-.04	-.41	-.06	-.03	-.32	-.27	-.06	-.58
	Rejection	.21	.13	1.12	.10	.07	.55	.26	.14	1.25	.58	.13	1.15
	Self-regulation	-.14	-.08	-.75	-.16	-.09	-.81	-.30	-.14	-1.38	-.60	-.12	-1.16
	Control	-.27	-.17	-1.79	.06	.04	.41	-.47	-.26	-2.75**	-.67	-.16	-1.67
Parenting stress	Stress in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s	.52	.29	2.00*	.11	.06	.40	.42	.21	1.42	1.04	.22	1.49
	Stress of difficult child	.12	.09	1.00	.17	.13	1.39	-.01	-.01	-.10	.28	.08	.86
	Educational distress	.01	.11	.18	.01	.01	.05	.21	.18	1.69	.23	.08	.80
R ²		.30			.22			.27			.28		
F		4.20***			2.66**			4.38***			3.67***		

*p<.05, **p<.01, ***p<.001

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가 공격 행동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불안행동에는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beta=.20$)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22%였다. 즉,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산만행동에서는 아버지의 학력($\beta=.30$)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양육행동 하위요인인 통제적 행동($\beta=.26$)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7%였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산만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고, 어머니가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일수록 유아의 산만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한국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과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 통제적

행동,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공격행동에는 양육행동 중 거부적 행동($\beta=.3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애정적 행동($\beta=.27$), 가정 월소득($\beta=.22$), 통제적 행동($\beta=.21$)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8%였다. 즉, 어머니가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그리고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으며 월소득이 낮을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불안행동에는 어머니의 학력($\beta=.25$)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은 가정 월소득($\beta=.1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4%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 월소득이 낮

Table 8. The effects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in China

Variables	Aggression			Uneasiness			Diffuseness			Total			
	B	β	t	B	β	t	B	β	t	B	β	t	
Socio-demographic variables	Gender of child	-.42	-.23	-2.94	.02	.01	.11	-.12	-.07	-.82	-.52	-.12	-1.43
	Age of child	.10	.09	1.14	.02	.02	.18	-.13	-.12	-1.46	-.02	-.01	-.08
	Mother's education	-.07	-.06	-.58	-.26	-.25	-2.05*	.03	.02	.19	-.31	-.11	-.92
	Father's education	-.12	-.11	-.96	-.01	-.01	-.07	-.25	-.21	-1.84	-.38	-.13	-1.14
	Family income	-.27	-.22	-2.74**	-.20	-.18	-2.02*	-.22	-.17	-2.08*	-.69	-.22	-2.67**
Parenting- efficacy	Efficacy of the parents	.01	.01	.05	.07	.04	.39	.25	.15	1.35	.33	.08	.71
	Frustration and uneasiness of parents	.01	.01	.13	-.07	-.08	-.76	-.07	-.06	-.66	-.13	-.05	-.51
Parenting behaviors	Affection	-.51	-.27	-2.59*	-.13	-.07	-.66	-.26	-.14	-1.25	-.89	-.19	-1.76
	Rejection	.53	.31	2.63*	-.03	-.02	-.15	.27	.16	1.28	.77	.18	1.48
	Self-regulation	-.08	-.05	-.44	-.12	-.07	-.65	-.22	-.12	-1.12	-.41	-.09	-.87
	Control	-.35	-.21	-2.10*	-.02	-.01	-.11	-.44	-.27	-2.54*	-.81	-.20	-1.88
Parenting stress	Stress in dysfunctional parent-child interactions	-.08	-.04	-.32	-.10	-.06	-.41	-.04	-.02	-.16	-.21	-.05	-.34
	Stress of difficult child	.02	.02	.17	.14	.13	1.19	.06	.05	.49	.23	.08	.71
	Educational distress	.05	.05	.46	.03	.04	.31	.16	.15	1.30	.24	.09	.82
	R ²	.28			.14			.20			.21		
	F	3.84***			1.42			2.27**			2.42**		

*p<.05, **p<.01, ***p<.001

을수록 유아의 불안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산만행동에는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 ($\beta=-.27$)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은 가정 월소득($\beta=-.17$)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0%였다. 즉, 어머니가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일수록, 그리고 가정 월소득이 낮을수록 유아의 산만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문제행동 총점에는 가정 월소득($\beta=-.22$)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변인의 설명력은 21%였다. 즉, 가정 월소득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중국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학력, 가정 월소득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행동, 거부적 행동, 통제적 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한국과 중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중요 변인인 반면 중국은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월소득이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중국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양육 관련 변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볼 때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각각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고,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연구는 있었으나, 한국과 중국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두 나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국과 중국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이 세 변인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해보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문화권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두 나라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대시키고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4곳과 중국 대련시에 소재한 유치원 2곳에서 292부의 자료를 수집해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Zhang(2009)의 연구에서 한국 어머니가 중국 어머니보다 애정적, 통제적 양육행동을 더 보여주고 중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보다 거부적 양육행동을 더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과 중국이 전통적인 가족을 강조하는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기본적인 자녀관이 비슷한 사회이므로 자녀 양육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누적된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 유아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유아의 공격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역시 유아의 불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행동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총점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남아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유아의 경우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행동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집단의 유아가 불안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행동은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집단이 산만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문제행동 총점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남아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국과 중국 모두 성별과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문제행동이 더 많다는 Jang & Cho(2000)와 Yun(200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Lee & Kim(2008), Bae(2009), Min(2010) 등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부모로부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이들 변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가 아닌 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먼저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모든 하위변인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나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모든 하위변인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나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아진다는 Choe(2011)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부모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잘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높게 지각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 유아의 문제행동이 줄어든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모든 하위변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Bae(2008)의 연구에서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은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는 어머니의 아동에 비해 문제행동을 더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를 애정적으로 대하면 유아 자신이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있다고 지각하게 됨으로 이로 인해 유아의 문제행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거부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문제행동의 총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가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Jeong & Oh(2000)의 부모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가 거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이 누적되어 이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율적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가 자율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은 모든 하위변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Lee & Park(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또한 Lee(199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의 빈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해 준다.

중국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은 부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의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ee(2004)의 연구에서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산만행동, 문제행동 총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 산만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부적 행동은 유아의 공격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적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하위변인인 공격, 불안, 산만, 문제행동 총점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유아의 공격, 불안, 산만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n(2010)의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애정적, 자율적 행동이 낮고, 거

부적 행동이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유아는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여 공격, 불안, 산만 등의 문제행동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어머니가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누적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공격, 불안, 산만 등의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공격, 산만, 문제행동 총점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행동, 문제행동 총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중 공격, 산만, 문제행동 총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 산만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해 연구한 Yun(200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 산만, 불안 행동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머니 자신이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증가되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이를 반영하게 되고, 이는 다시 유아의 공격, 불안 등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은 모든 하위변인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은 하위요인에서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이 더 높은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한국과 중국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 결과 한국의 경

우 유아의 공격행동에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어머니의 학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아버지의 학력, 유아의 성별 순으로 유아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 & Doh(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신경질적이나 강압적인 언어 사용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는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과 아버지의 학력이 유아의 공격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성별이 공격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남아일수록 공격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불안행동에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느낄 경우, 좌절감과 불안감 같은 감정적인 표출이 나타나기 쉬우며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유아의 산만행동에는 아버지의 학력, 통제적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산만행동이 많아지고, 어머니가 통제적인 행동을 덜 보일수록 유아의 산만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유아의 공격행동에는 양육행동 중 거부적 행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다음은 애정적 행동, 가정 월소득, 통제적 행동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적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고, 어머니가 애정적인 행동을

덜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많아지고, 가정 월소득이 낮을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통제적인 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공격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소홀하며,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행동을 보여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반영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불안행동에는 어머니의 학력, 가정 월소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 소득이 낮을수록 유아의 불안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또 유아의 산만행동에는 통제적 행동, 가정 월소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통제적인 행동을 덜 보일수록, 그리고 가정 월소득이 낮을수록 유아의 산만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문제행동 총점에서는 가정 월소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 월소득이 낮을수록 유아의 문제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월소득이 적으면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 유아가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고,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악화 등이 유아의 문제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중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 통제적 행동,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어머니의 학력, 가정 월소득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 행동, 거부적 행동, 통제적 행동 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중요변인인 반면 중국은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월소득이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

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중국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문제행동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는 부모가 유아에게 제공하는 환경이나 양육변인이 달라지므로, 어머니의 학력은 두 나라에서 모두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최근 빈부의 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격차가 양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의 월소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인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육관련 변인 중에서는 한국의 경우는 직접적인 양육행동 보다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자녀양육에 있어 효율적이라 생각하거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등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서 느끼는 지각이 밀접하게 관계되는 반면, 중국의 경우는 양육에 관계된 어머니의 직접적인 행동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경우 사회분위기가 행동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인 반면 한국은 보다 민주적인 사회분위기를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위기가 어머니의 양육문화에도 나타나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연구의 대상이 한국과 중국 모두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표집 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가 적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과 중국에서 만3~5세의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을 연구하여 두 나라의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를 비교 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추후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 작성을 유아의 어머니 및 담당 교사에게 평정하게 하였는데, 평정자의 주관성이나 편견을 배제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관찰이나 면접 등 보다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을 만3~5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 제한하였는데 최근에는 부모 공동양육이 강조되고, 어머니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비중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의 경우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 통제적 행동,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는 애정적, 거부적, 통제적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chenbach T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profile. Burlington,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n SH(2010) The influence on child's problem behavior by parent's rearing-attitude and child's temperament.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Bae MJ(2008) The relations among the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Bae SJ(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daily stress, problem behavior.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Behar LB, Stringfield S(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 Psychol 10, 601-610
- Choe EJ(2011) The influence of parent's self-efficacy upon young child's problem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Choe HS(2002) Effects of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stress, and child's temperament o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Doctoral's Thesis, Korea University
- Coleman PK, Korraiker KH(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f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 Rev 18, 47-85
- Giband-Wallston J, Wandersman LP(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al senc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Her CS(2003) The comparative study of rearing attitud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parents. Stud.'s Living Res Cheju National Univ 24, 39-72
- Her MK, Lee SU(2010)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temperament and goodness-of-fit on young children's social ability. J Korea Open Assoc Early Child Educ 15(3), 353-373
- Hong KE, Hong KJ(1986) Child behavior symptom questionnaire and child psychiatric diagnoses: A preliminary study. J Korean Neuro Psych 3(22), 366-374
- Hwang HJ, Yun MH, Kang SB, Seong NU, Hwang HS(2002) The developmental study of preschool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ecklist. J Early Child Educ 22(1), 72-88
- Jang YS, Cho JA(2000) The relation of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to their gender, age, temperament and their teachers' temperament. J Future Early Child Educ 7(2), 97-119
- Jeong HH, Oh MK(2000) Children's sensation seeking,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J Korean Home Manag Assoc 38(6), 171-183
- Johnston C, Mash E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 Clinical Child Psychol 18(2), 167-175
- Jung JY(2002) A study o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 Relations to the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behavior problem and the mother-child's goodness of fit.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 Jung SH(2011) Relationships of mother's temperame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aring behaviors and infant' problem behavior.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 Kang HK(2003) Children's problem behaviors affected by their mothers' discipline styles.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 Kang SN(2008) The art therapy with reality therapeutic approach to improve the mother's rearing-attitude and her children's problem behavior. Master's

- Thesis, Yeungnam University
- Kim CK(1995) Stud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oblem behavior and environment factor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Kim MJ, Doh HS(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Korean J Child Stud* 22(2), 149-167
- Ko SH(1994) A study on the childrearing stress of mothers realizing. *Stud Korean Youth* 18, 21-37
- Ko YM(1995)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and factors concerning family and children's sex.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CS, Kim KY(2008) A study of young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 related factors. *J Future Early Child Educ* 15(2), 161-184
- Lee ES(1994) A study of children's and mothers' self-efficacy and children's superiority.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 Lee HJ(1997)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maternal stress and stress behavior of their children. Doctoral'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JS(2004)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al efficacy and parental practices on children's social ability. *J Korean Home Manag Assoc* 22(6), 67-73
- Lee KS, Shin YJ, Chun YJ, Park JA(2004)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 problem among young children in Korea. *Korean J Dev Psychol* 17(4), 53-73
- Lee MA(2009) The effects of parenting knowledge and child rearing involvement on their parenting efficacy.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Lee SU(2007)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and attention ability by parenting attitude. *J Child Stud* 28(2), 71-89
- Lee WY(1983) The relationship of mother's educational views and child-rearing attitude to child development. Doctoral'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YJ, Park K(2005)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 Psychotherapy* 5(2), 39-57
- Li FY(2002)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aring attitude of Korean and Chinese mothers-centered on Yanbian and Jeju.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 Min SW(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ild-rearing stress on the child-rearing attitud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 Park CU(2002) The study regarding the marital relationship and the bringing up method of mother influenced on the problem conduct of the childre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Park HM(1994) A study on parental stress based on the parenting of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HM(2010) Relationship of mothers' parenting, preschool children's stress and problem behavi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MJ(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action type to child's negative emotion,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tress behavior.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 Ren RX(2002)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Yanbian Korean-Chinese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child-rearing practice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Schaefer E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 Abnorm Soc Psychol* 59, 226-235
- Shin SJ(1997) Effect of parenting stress,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Doctoral's Thesis, Yonsei University
- Son SY(2004) Differences in preschool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behavior between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Song HK(2004) A study on their child rearing attitudes of the only child's mothers and two or multiple children's mothers.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 Song JS(2003) Effects of children's social ability, temperament, emotionality, and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 *Korea J Child Care Educ* 35, 143-161
- Su HY(1992) A study on mother's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Symonds P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Columbia University
- Youn JJ(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young children's aggressiveness behavior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Wonkwang Univ Theses Collection* 36, 207-220
- Yun YH(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ing stress of employed mothers and the daily hassles and problems behaviors of childre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 Yun YU(2003) The effect of hearing impaired mother's social support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coda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 Zhang J(2009) A comparative study of the child-rearing attitudes among Korean and Chinese mothers with one chil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 Zhao L(2007) A comparative study of the value of children and child-rearing attitudes among Korean and Chinese mothers with one chil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